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문명과 야만 사이의 한국: 정체성에 대하여

김영민

2026년 4월 6일 저녁 7:30~9:3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한국인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 한국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 문명과 야만 사이의 한국의 정체성을 묻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김영민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생년월일, 체중, 키, 혈압, 피부 탄력 정도, MBTI, 학력, 경력 등과 같은 사실의 단순한 나열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열망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 공동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하는지에 정체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열망이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행동을 방향 짓고, 판단에 준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 이야기를 해보죠.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귀환하자 아테네 사람들은 영웅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를 보존하기로 결정합니다. 배의 판자가 썩으면, 썩은 판자를 새 판자로 교체하면서까지 배를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르크는 테세우스의 배를 사례로 들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랜 세월 그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배의 모든 판자는 새 판자로 교체될 것이 아닌가. 모든 판자가 다 교체된 배, 그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돈 빌리러 왔는데요”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행원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고객님의

신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신용은 미래의 당신의 지불 능력을 나타냅니다. 만약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면, 신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죠. 지속하는 정체성이 있기에 인간은 미래로 뻗어 있는 긴 시간을 견디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신용이라는 허구를 통해 당장 돈이 없는 사람도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혹은 무엇이였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정체성은 문명 지향국, 즉 문명을 지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문명은 곧 야만이 아닌 어떤 것입니다. 야만이란 아직 인간의 힘으로 삶의 조건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한 상태이고, 문명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 삶의 조건을 한껏 향상시킨 상태입니다. 문명국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는 야만국이 필요합니다.

문명 지향국이라는 말은 이중적입니다. 야만적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 충분히 문명적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문명을 향한 존재’는 ‘자신이 문명 그 자체’인 존재와도 다르고 야만적인 존재와도 다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신이 문명 그 자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문명 그 자체라고 주장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른바 중국 문명은 자신을 문명의 핵심으로 여기고 주변국을 자기보다 덜 문명적인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한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는 아름다운 꿈입니다. 현실에서는 힘센 나라가 맹주 혹은 패권국 역할을 하고 약한 나라는 그를 따르죠.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는 일은 야심 찬 일이지만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느슨하게나마 공동 방위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패권국의 군대 출동 요청에 시달리기도 했고, 패권국 역시 (임진왜란의 경우에서 보듯) 한반도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세력권 내의 나라들에게 우선적으로 조공 무역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맹주에게 알아서 복속하고 인사 오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주변국 사신들이 조공을 오는 모습을 그린 「직공도」, 「만국래조도」, 「왕회도」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장르화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만국의 사신들이 조공물을 직접 들고 인사를 올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협이나 전쟁의 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보보다는 재현의 욕망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고 문명국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돌아가서 자기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요컨대, 문명을 자임하는 맹주 국가에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것은 양자의 이해관계에 잘 맞는 일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명 지향국 혹은 조공국의 상태가 한국 역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원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간 17세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줄곧 상국으로 모셔 오던 명나라가 무너지고 야만족으로 치부해 오던 만주족들이 중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의 정체성은 유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줄곧 야만적이라고 멸시하던 상대가 이제 상국이 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정신적 대격변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정체성은 문명국을 향하는 데 있었지, 강대국을 향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내심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이야말로 중화 문명의 주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세기 전반기는 일제 식민지 시기였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른바 식민 사관을 통해서, 한국이 후진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상대적 야만국 취급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 한국 학문의 주요 어젠다는 자존심 회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빛과 같은 속도로 한국 정체성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같은 정체성의 유산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의미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오늘날의 한국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예전에 비해 다원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별, 성별로 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강대국의 위세는 여전하지만, 21세기의 국제 정세는 한층 다극화되었죠. 한국은 중국 문명, 서구 문명, 미국 문화, 일본 문화 등을 선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문화가 타국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체성 유산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살펴보았듯이, 한국 정체성 유산에는 야만국, 문명 지향국, 문명 중심국의 부분이 모두 있습니다. 저는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권력자나 하위 주체보다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대상에 관심이 있다고. 한국의 정체성 역시 모순에 찬 역사 때문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브린모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중국 정치사상사 연구를 폭넓게 정리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2017)와 이 책을 저본 삼아 국내 독자를 위해 내용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체로 담은 『중국정치사상사』(2021)를 출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어번역비평』, 『논어-김영민의 새번역』, 『배움의 기쁨』, 『논어란 무엇인가』로 이루어진 논어 시리즈(2025)를 출간했다. 산문집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2019), 『공부란 무엇인가』(2020),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2021),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2022), 『인생의 허무를 보다』(2022), 『가벼운 고백』(2024), 『한국이란 무엇인가』(2025)를 펴냈다.